

01 교회소식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운동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주일학교 형제들.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셨지만, 갈렙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싱싱 신나는 여름방학 행사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특별 행사를 준비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04 간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주님~”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은 한화림 집사와 오른팔 마비를 치료받은 케냐 루스 아키니아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928호 2020년 9월 1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기도하며 경기에 임하니 좋은 성적 거뒀어요!”



제49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2관왕, 다니엘 형제

우리 교회 고2선교회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형제(17세)가 제49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2관왕의 열매를 맺었다.

지난 8월 9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남자고등부 100m 결승에서 10초 68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종전 10초 71)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결승 전 자동응답서비스에 담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고, 경기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타트 직전에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뒤 힘차게 달렸지요”라고 말했다.

이틀 뒤에 열린 남고 400m 이어달리기 결승 경기에서는 마지막 주자로서 폭발적인 질주로 선두 선수를 순식간에 따라잡고 흥미진진한 역전승을 거둬 팀에 우승을 안겨주고 자신은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한국형 우사인 볼트(100미터 세계 신기록 9초 58 보유자)’라는 별칭으로 주목 받고 있는 다니엘 형제는 달릴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을 차지한 잠재력을 인정받아 단거리 유망주로 손꼽힌다. 또한 팬들로부터는 ‘떠오르는 샛별’, ‘마의 9초벽을 깬 유망주’라 불리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에게 우승 소감을 묻자 “금메달의 기쁨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니엘 형제는 2018, 2019년 ‘만민하계수련회’ 체육대회의 남자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로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육상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중3 때 하나님 은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부터 비로소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신앙심 깊은 그의 어머니 버지니아 집사(해외교구)는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늘 기도해왔습니다”라며 감사와 영광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했다.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자유형 57kg급 금메달, 전진수 형제

지난 8월 19일부터 7일간 강원도 평창군 소재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양정모올림픽제패 기념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자유형 57kg급에서 우리 교회 고3선교회 전진수 형제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 선수들을 차례로 이기며 결승에 올랐다. 지난해 제13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남고등부 자유형 53kg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그였음에도 결승전에서는 힘이 좋은 상대 선수를 만나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던 중 마지막 몇 초를 남겨 두고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 대회로 중고등부의 진학 및 대학부의 실업팀 입단과 관련된 중요한 대회였다. 올해 고3인 그로서는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전 형제는 “처음에 대진표를 봤을 때는 부담이 되었지만, 한 명 한 명 이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비전에 대해서는 “우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서 보는 것이 꿈”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때 그는 좋은 환경과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에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모든 훈련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한 결과 오늘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레슬링 국가대표 돼 영광 돌리고 싶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10~12)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과정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중앙지역의 전투에 이어 남부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지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부지역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은 북부지역의 부족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움 속에 경계의 눈초리로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힘을 하나로 뭉치고 사력을 다해 그들을 대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후손의 가나안 땅 정복

북부지역의 가나안 족속들 중 큰 힘을 가진 성읍 하솔 왕 야빈은 급히 주변 나라들에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그 수가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수 11:1~5).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생활과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후였고, 다른 동맹군의 도움도 없이 연합군을 상대해야 했지요. 자신들의 병력과 힘을 의지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수 11:6).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체하지 않고 수많은 적을 향해 기습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병력을 믿고 물가에 진을 친 연합군은 졸지에 당한 급습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시니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을 일시에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잡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대한 성읍 하솔을 불

살라 파괴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였고, 나머지 성읍들도 차례로 점령하였지요.

중부와 남부에 이어 북부지역의 싸움에서도 승리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차례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2. 믿고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취하기까지(수 11:23)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하신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에 와서야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후로도 다시 40년의 광야생활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7여 년간의 정복 전쟁을 거쳐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기사와 표적을 수없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해 나아감으로 마침내 짓과 풀이 흐르는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수 11:15),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3. 각 지파의 믿음으로 취해야 할 단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모든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 점령 하에 들어왔지만, 가

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을 멸한 것은 아니었지요. 아직 남아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점령한 땅에 정착함으로써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이끌어 왔던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땅들을 취해 나가야 하므로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하십니다. 점령한 땅들은 물론 앞으로 점령할 땅들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간 반면에 앞으로는 각 지파의 믿음대로 자신들의 몫을 차지해 나가도록 명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부터 자신의 기업을 공고히 하는 것은 각 지파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는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지파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렘입니다.

4. 믿음과 헌신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한 갈렘

처음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수없이 보고도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맛았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 중 한 사람은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였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렘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갈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나 그 후로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수 없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다니엘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독서 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며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수 14:10~12).

갈렙의 요구는 과거에 자신이 잘한 일을 내세워서 어떤 대가를 얻겠다는 것도 아니요,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어른이며 전쟁에도 많은 공을 세웠으니 그만한 대가를 취하겠다는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40년이 넘는 연단 가운데 더욱 견고해진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는 섬김의 표현이었지요.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의 유해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조상의 뼈가 묻힌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며 밟았던 땅으로, 아직 이방 족속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싸워서 취해야 하는 열악한 지역이었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땅

은 어려움을 함께해야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밟로 밟으며 탐지하였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긴 풍상을 겪으며 어느덧 노장이 된 갈렙은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지형이 가장 험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헤브론 땅을 자신이 담담함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덜어 주고 싶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오랜 세월 연단을 함께 겪어 온 동지이자, 믿음의 벗으로서 히로에락을 같이 한 갈렙은 이스라엘의 어른인 만큼 그만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젊은 장수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 험악한 산지로 가겠다는 갈렙의 요청을 들을 때 여호수아로서는 망설여질 수도 있었겠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며 자신의 기업을 취하려는 갈렙의 모습에 여호수아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렙의 마음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후 갈렙은 과연 믿음으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비옥한 땅을 취함으로 대대로 이어질 기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을 필두로 하여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장수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감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중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주일학교 // 싱싱 신나는 여름방학 행사



“유튜브에서 선생님,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예배와 모임이 중지된 가운데, 예년처럼 여름성경학교를 치를 수 없게 된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지난 8월 초,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특별 행사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말씀 포커스’, ‘찬양과 경배’, ‘우리들의 간증’, ‘우리 학년 이야기’,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장 장성식 목사의 설교와 지도교사들의 은혜로운 멘트를 전하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촬영하여 보내준 찬양과 율동, 구연동화, 태권도, 그림 그리기 등 장기 자랑과 간증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도 있었다.

홍보배(4학년, 남) 아동은 6~7세 때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간증으로, 송주희(6학년, 여) 아동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로 아토피성 피부염과 감기를 치료받고,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바른 뒤 예쁜 쌍꺼풀이 생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한편, ‘우리 학년 이야기’는 학년별로 해당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수준에 맞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과 시간이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율동 시간, 성경 퀴즈 등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들이 즉석에서 행운권을 추첨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아부는 주교사들이 준비한 인형극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통해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뒤,

찬양(율동),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식사 전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내는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

강성결(3학년, 남) 아동은 “엄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날 성경 퀴즈가 마태복음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 느껴지니 성경을 계속 읽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났는데 이번에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니까 기분도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성결 군의 어머니 허정옥 권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못 가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니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자주 볼까봐 신경이 쓰이던 차에 이번 행사가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동주일학교 교장 장성식 목사는 “어린이 예배를 수개월 동안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지도교사와 부장,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동참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어느 학년은 성경 퀴즈를 실시간으로 진행했는데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더 즐거웠습니다. 상품으로 보내준 모바일 쿠폰으로 맛있는 간식을 사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라며 특별히 학부모들의 감사 메시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울한 내 삶을 빛과 소망으로 채워 주신 주님, 사랑해요”

한화림 집사 (48세, 2가나안선교회)

타 교회에서 성가대 사명을 감당하던 2001년경,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만민중앙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워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선하고 진실하신 분 같았지요.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인데도 찢림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는 이따금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곤 했지요.



그러던 2011년 7월, 제 삶에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와 수술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사도 못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더욱이 집안 사정도 좋지 못했지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께 매달릴 힘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아무 의욕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왔지요.

이듬해 또다시 항암치료가 시작돼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곁에서 대하며 저는 사는 게 너무 막막했고 우울감도 더해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용기를 내 금요일아침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처음 간 저도 어색하지 않았지요. 이후에도 금요일아침예배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고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해 9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우수수 빠져나가는 듯한 현상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당회장님 말씀의 빛에 제 안에 있던 어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부터는 살롬성가대 대원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우울증 증세도 사라져 굳었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지요.

제가 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시 구로구 교회까지

는 먼 거리였지만, 오가는 길이 마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피곤함과 염려가 사라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점점 더 제 마음에 가까이 다가왔지요.

저는 고3 때부터 갑각류 알레르기로 꽃게나 새우 등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복통과 더불어 열이 나고 가려워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민에 와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그 증상이 사라져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2019년부터는 선교회 기관장으로, 2020년에는 학생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길 기회를 주셔서 내성적인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각종 예배와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헌금도 조금씩이나마 더 드리며 말씀 무장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한 제 기도제목인 주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매순간 노력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제단으로 이끌어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의 소망이요 신랑 되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른팔 마비를 치료받은 뒤 제 삶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루스 아키니아 자매 (22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저는 언니의 전도로 2007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의 첫 인상은 거룩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정명호 담임목사님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초, 세계 뜻밖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오른팔이 마치 냉동실에 넣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의사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오른팔이 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직장조차 다닐 수 없게 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들으면서도 행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해 8월 초에 열릴 만민하계수련회를 사모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였지요.



드디어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참석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저는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

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오른팔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마쳐진 뒤 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마비된 채로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던 제 오른팔을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이후 제 오른팔에는 날로 힘이 주어져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달라졌지요. 각종 예배와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가대 사명도 더 열심히 감당하며, 제 삶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축복까지 받았지요.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행복이 가득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대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